<만든 변수에 대한 설명>

Runtime: 따로 정해진 정의가 없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얼만큼의 timeslice 를 할당받았는지 표시하는 변수로 사용했습니다. 자다 일어나는 프로세스의 경우에도 값이 초기화 되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. 밀리틱 단위를 위해 1000을 곱해서 출력합니다.

Vruntime : 받은 timeslice 에 weight 가 첨가된 가상의 값으로, 자다 일어났을 때는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됩니다.

Total tick : trap.c 안의 ticks 라는 변수를 그대로 출력했습니다.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합니다. 역시나 밀리틱 단위를 위해 1000을 곱해서 출력합니다.

<Testcfs.c 수정>

ps(); 코드를 ps(0);으로 수정해야 실행이 됩니다. ps 가 pid 라는 int 형 변수를 받아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시간제한은 없지만, 연산 instruction 을 넣어놓은 for 문을 도는 횟수를 많이 줄여야 2 분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.

<코드 설명>

scheduler(): 다음으로 running 할 프로세스를 스케줄하는 함수입니다.

- 1. 최소 vruntime을 가지고 있는 runnable 프로세스를 찾습니다. (Cpu 는 1개인 것으로 가정함)(cpu 가 1 개이기 때문에 running process 도 runnable 에 포함시키라는 조건은 이해가 잘되지 않지만 프로세스 timeslice 할당할 때 영향이 있도록 포함시켜 놓았습니다.)
- 2. 찾은 다음 그 프로세스의 timeslice 값을 알맞게 설정하고, runtime 에는 할당받은 timeslice 를 더해줍니다.
- 3. Vruntime 은 weight 에 따라 알맞은 값을 더해준 다음 그 프로세스는 running state 로 갑니다.

trap.c: 프로세스가 주어진 timeslice 를 다 쓰기 전에 종료가 되도 어차피 끝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정확한 vruntime 은 의미가 없고, 마찬가지로 sleep 으로 가는 프로세스의 경우에도 일단은 runnable processes 에서 빠지기도 하고, 다시 wakeup 한다 해도 그 때는 vruntime 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sleep 으로 갈 당시의 vruntime 은 의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trap.c 의 yield() 호출 부분에서 timeslice 동안 yield()를 하지 않고 잡아 두도록 했고, runtime 과 vruntime 은 미리 running state 로 가기 직전에 업데이트를 합니다.

allocproc(): 새로 들어온 프로세스에 대한 weight, runtime 등의 프로세스 구조체 변수 값을 초기화 해줍니다.

fork(): 자식 프로세스에게 vruntime 을 포함한 부모의 여러 변수 값을 그대로 옮겨줍니다.

wakeup1(): 자다 일어난 프로세스의 vruntime 을 초기화 하는데, 그 값은 현재 runnable 프로세스 중 최소 vruntime 값에 일어난 프로세스의 vruntime 으로 1 틱이 되는 값을 뺀 것이 됩니다.

<integer overflow>

console.c 의 %d 출력 알고리즘에서 sign bit 를 0 으로 바꿔서 unsigned int 범위까지 확장했습니다.

## 실행화면> max ncpu=1;

